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보 도 자 료**

<http://www.msip.go.kr>

2014. 6. 11(수) 석간(온라인 6. 11. 0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전과정책기획과 오광혁 과장(02-2110-1960), 운용수 주무관(02-2110-1968)  
한국전파진흥협회 전파방송산업진흥센터 이병국 센터장(02-317-6120)

## 생활 곳곳 전파기술 활용, 중소기업이 앞장선다

- 미래부, 전파분야 유망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우수 제품 개발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파 관련 분야의 16개 기업을 선정하여 총 600백만원의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11년도에 시작하여 올해 4년째를 맞는 '전파산업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은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자금력이 취약해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파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올해에는 지난 5.1~5.23일간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16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 이번 선정된 기업은 2014년 12월까지 시제품 완성을 목표로, 기업당 최대 4천백만원의 제작비용을 지원받아 사업화를 진행하게 된다.
- 특히, 금년도에는 '전파 간섭을 최소화하는 기업용 무선랜(Wi-Fi) 공유기(이노넷)' 등 전파 기반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 다수 선정되었으며, 생활밀착형 전파기기 및 최근 주목받고 있는 착용형(웨어러블 : wearable) 관련 제품도 선정되었다.

- 조규조 전파정책국장은 “전파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의 핵심자  
원으로 전파자원을 생활 곳곳에 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창조경제 실현에도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설명하며,
  - “현재 전파분야 기업 대부분이 열악한 중소기업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이 다양한 전파활용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  
기업이 제품화의 장벽을 넘어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미래부는 사업화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및 기술애로  
해소 지원, 해외진출 연계 등을 통해 국내 전파기업이 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ICT 생태계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붙임 : 2014년 시제품 제작지원 선정 결과

[붙임]

## 2014년 시제품 제작지원 선정 결과

기업명	제품명
(주)블루셀	엘리베이터내 이동통신 전파 품질 개선을 위한 옥외 안테나 신호 확장용 링크
이노넷(주)	전파 간섭을 최소화하는 기업용 Wi-Fi 공유기
(주)아리텔	해외 수출용 Outdoor TD-LTE 초소형 기지국
(주)젠믹스텍	60GHz대역 저손실 전파전송관(도파관)-증폭기 모듈
(주)엑스엠더블유	위성통신용 K-Band 고효율 40W급 송신기
(주)알판트	900MHz대역 RFID 초박형 메탈태그 인쇄 시스템
(주)동연시스템	농어촌 마을 안내방송용 디지털 송수신 장비
(주)엘트로닉스	최적 주파수 자동 검색 그룹통화 무전기
(주)연화엠텍	아날로그/디지털 겸용 휴대용 무전기
(주)텔트론	전파 센서를 이용한 LED 조명등
(주)에스모바일텍	Zigbee 기반의 혼간섭 경감기술을 적용한 무선 전자 가격 표시기
석천정보통신(주)	태양광 충전 원격 제어 도로 시선 유도등
에스씨에스프로(주)	올인원 카드 결제 무선 단말기
힘블	블루투스4.0 기술을 적용한 전시품 도난방지 관리 장치
(주)인프라칩	블루투스 및 모션센서 내장 웨어러블 스마트링
(주)스타넥스	학교폭력 방지 및 긴급호출용 무선벨